

'미리 보는 2009년 한우 최우수농가' 조차환 농가

부산경남지역본부 과장 차명렬

예전부터 수차례 방문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농장에 와봐야 무식한 촌놈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별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서 한사코 거절하던 조차환 대표의 경남 김해시 생리면 생철리에 소재한 농가를 어렵게 방문 할 수가 있었다. 현재 한우 거세 비육우만 25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농장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한우 번식우 150두를 사육하다 질병(브루셀라)으로 모두 도태 시켰던 아픈 과거도 있다.

사양관리

비육 단계별로 TMR사료를 자체 제조하여 급여량 및 배합사료 종류 등이 엄격히 관리 되고 있는 소를 보며 좋은 등급을 받는 비결을 물어 보았다. 조 대표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무엇보다도 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 다며 축사에 들어서기 전에도 언제나 큰기침 소리를 내어 주인이 왔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등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 출하 및 구입 시에도 직접 수송하며 또한 등급판정 직후 반드시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예상했던 결과와 상이 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즉시 등급판정사에게 등급판정 결과 및 소의 사양 과정 등을 논의하여 장 단점을 피드백하고 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의 결과일까 전년 4/4분기부터 올 5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우는 우수한 등급판정결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품질고급화장려금도 1,000여만원을 수령하였다. '2009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한우부문 최우수 농가' 풀 미리 보는 듯 했다.

향후 계획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사육두수도 500두 이상으 로 늘릴 계획이며, 1+등급 출현율도 77%에서 9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조차환 농가 등급판정결과〉

(기간 : '08.10.1~'09.5.31)

구분	1 ⁺⁺	1 ⁺	1	소계
한우 거세우	106	28	3	137
출현율(%)	77.4	20.4	2.2	100.0

